WORLD MISSIO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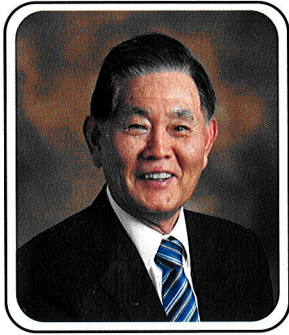
HERALD

월드미션대학교 제 22 회 학위수여식 특집

WORLD MISSION UNIVERSITY
empowers people
though transformational biblical education
to serve the church and impact the world for christ.

목 차

1 목 차
2 인사의 말씀
3 2013 졸업생
10 졸업생 답사 -최쎄라 학우
11 학술 세미나 - 안경승 교수
13 교수 칼럼 - 임성진 교수
14 교수 칼럼 - 임종호 교수
15 교수 칼럼 - 신선묵 교수
16 교수 칼럼 - 윤임상 교수
17 설교 대회 - 서태욱 학우
19 간 증 - 김문기 학우
21 WMU 학교 행사
23 동문 리스트
25 교 가

꿈꾸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솔로몬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묵시는 비전이나 꿈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역경 가운데서 견디어내며 인내해 나갈 수 있습니다. 꿈이 바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꿈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시를 쓰게 하는 여유를 주고 장년들에게는 활력을 불어 넣어 줍니다. 그리고 노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촉매제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질을 남겨 주는 것 보다 꿈을 심어 주는 것이 더 큰 자산을 남기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어린 소년기부터 꿈을 꾸던 사람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부를때는 꿈꾸는 자(Dreamer)라고 부를 지경이었습니다 어릴 때 꿈을 꾸던 요셉은 자기가 꿈꾼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꿈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꾸어야 됩니다. 환란과 역경가운데서도 꾸어야 합니다. 나는 꿈을 가졌다(I have Dream)고 외치고 있던 미국의 민권운동가요 신앙의 사람 마틴 루터킹(1939.1.15.-1968.4.4)은 인종차별이라는 거센 파도 앞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계속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흑인들은 멸시와 천대로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버스를 타도 백인들이 앉는 좌석과 흑인들이 앉는 좌석이 구별 되어 있었습니다. 백인들의 자리가 비어 있어도 흑인들은 백인들의 자리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까지도 그랬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으로 외치고 있으면서도 백인교회에는 흑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킹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오늘도 내일도 어려움은 첩첩이 쌓여있다. 그러나 나는 꿈을 갖는다. 언젠가는 미시시피 주까지도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하리라고 나는 꿈꾼다. 나의 사남매가 피부색갈이 아닌 인격으로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나는 꿈꾼다. 남쪽 앨리바마 주에서 검은 아이들과 백인아이들이 정답게 손을 잡고 놀 것이라고 꿈을 갖는다. 이 꿈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의 동산에서 희망의 반석을 캐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던 마틴 루터의 꿈은 그 가 세상을 떠난지 40년이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실현 되어졌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탄생한 것입니다. 미국이 독립한 지 232년 만에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2012년도에는 재선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WASP이라는 사회적인 불문율이 있었는데 그 불문율(W: White, AS: Anglo Saxon, P: Prostant)도 깰 수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학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서부의 명문대학이 될 것이라는 꿈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꿈꾸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송정명 목사

존경하는 총장님, 이사장님, 교수님들, 그리고 모든 가족과 지인 여러분,

제가 22회 졸업생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설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리포트와 Research Paper 쓰는 요령도, 또 참고문헌 찾는 방법도 몰라 쩔쩔매면서 겨우 첫 번째 리포트를 제출하고 나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두 번 다시 사서 고생하지 않겠다' 며 매 학기말이 되면 기말고사 공부하면서 몇 번이고 다짐하지만 그 고통의 순간을 어느새 또 잊어버리고, 또 다시 새 학기 강의 스케줄을 살펴보며 새로운 기대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갔고 졸업생 대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여러분과 학교 운영진 여러분, 20대부터 60대가 넘는, 서로 다른 삶에 굳어져 있고 각자의 고집과 습관에 학습되어 있던 우리 모두를, 성경적 교육과 말씀을 통해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만을 위하는 한가지 마음가짐의 사람들로 양육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WMU가 좋은 학교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학교를 다니다 중도에 그만둔 한 학우가 노방전도 중 불의한 교통사고로 숨졌던 사건을 통해 저는 WMU가 더 말할 것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근사하고 자랑스러운 학교라고 더 큰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학중인 학생도 아니고 도중 하차 한 학생이라서 실제로 학교와 더 이상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가 나서기도 전에, 교수님들과 직원들, 그리고 학우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들 주머니를 털어 동부에 살고 있던 그 학우의 딸과 사위의 교통비용과 체류비용은 물론이고 모든 장례비용까지 앞장서서 해결해 주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은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말만 앞세우는 사랑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우리 학교가 모두에게 살아있는 Role Model 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지체들과 친구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중보의 기도를 올려주셨습니까? 그리고 기도후원자로 혹은 선교후원자로 저희들을 섬겨주셨던 것,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학사과정을 마친 사람들은 더 높은 학위에 도전 할 수 있게 되었고, 석사과정을 마친 사람들은 마침내 사역지로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께 감사 드립니다. 사실 가족 여러분의 희생이 없었으면 오늘이 없었을 겁니다. 저희들을 위한 부모님들의 염려와 끝없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넘치는 과제로 집안살림을 제대로 못했어도 남편의 깊은 이해가 있었고, 아내의 이런 저런 부탁도 공부 때문에 여러 번 거절했어도 눈을 감아두는 고마운 아내가 있었고, 공부다 시험이다 하면서 주말이 되었어도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 때 엄마, 아빠를 이해해 주는 저희들의 사랑스런 아이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졸업의 영광을 우리의 가족 여러분에게 돌리기를 원합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목회자라는 Calling 때문에 함께 항해에 오른 가족들, 앞으로도 많은 눈물로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미안하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공부했던 졸업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같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더 남아 있을까요? 그 동안 함께 웃으며 공부하고 함께 울며 기도드렸던 시간들을 우리모두가 소중히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본금이다. 이 자본을 잘 이용한 사람에겐 승리가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몇 년의 세월을 정말 보람된 것,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것에 투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배움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참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학교를 떠나길 바랍니다.

W - We Will Do It! 저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겸손한 자세로 따르고 행하겠습니다.
M - Mission Possible!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불가능한 미션은 없다고 믿습니다.
U - United as One! 저희는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월드미션, 사랑하는 학교, 벌써 그리운 나의 학교와 교수님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 이제 답사를 마치려 합니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정한 답사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가정에서 그리고 사역지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낮은 자세로 가는 곳 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열심히 섬기면서 학교의 이름을 빛내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후배양성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이 되는 선배가 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답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랑하는 월드미션을 위해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는 졸업생들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계속적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로 도와주시고 만일 저희가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바른 말로 저희가 올바른 사역자의 길을 갈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졸업생 대표 최쎄라

지혜로운 돌봄

* 기독교적 돌봄의 독특함
- 영적 자원의 활용과 성경적 주제의 적용

1. 지혜에 대한 성경의 이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 3:5-6)
① 호크마(Hokhmah):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지 가르쳐 줌
② 비나(Binah): 허상과 실상, 진리와 거짓, 일시적인 쾌락과 먼 미래를 내다보는 분별력
③ 투시야(Tusiyyah): 영적이며 심리적인 진리를 꿰뚫어보 통찰과 판단

(1) 지도력을 통한 구현
① 모세시대 (출 18:19—22; 민 11:11; 신 1:15 이하)
② 사무엘 (선견자, 사사. 제사장, 선지자)
③ 왕정시대 (왕, 제사장, 선지자, 지혜자,렘 18:18, 겔 7:26)
* 왕은 순종과 불순종, 겸손과 교만의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 제사장은 예식과 교육을 통해 본질을 찾게하는 것, 선지자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전하는 것, 지혜자는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적용하는 역할

(2) 돌봄을 통한 구현
①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책에 대한 통전적 이해
② 인생에 대한 연구
③ 창조물에 대한 이해.
④ 삶의 신앙적, 윤리적 지침 ⇒ 모략(counsel)과 지혜

(3) 지혜의 성격
① 창조질서(Order): 잠 1-9장, 8:22-30 / 도덕질서 혹은 공동체 질서, 밤과 낮의 "약정"(huqqim)은 하나님의 "율법" 자체나 그 "율법을 새긴다"를 의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다른 한편 하늘과 땅에 내재된 하나님의 규정이 온 우주를 인도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 장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지혜
- 지혜는 세상의 질서와 인과 원리적 법칙을 있게 만든 장본인이 된다. (잠 3:19-20, 잠 8:30)

② 역질서(Counter Order): 욥기나 전도서와 같은 지혜서들은 현실에 대한 역설적 본질과 고통과 불의 그리고 인간의 한계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고 있다.
③ 소망의 질서(Order of Hope): 예수님(사 9:1-7; "Wonderful Counselor", 11:2; 모략과 재능의 영)

혁신적 지혜(subversive wisdom)

2. 지혜에 대한 현대적 이해
① 'wise':
"본다" 또는 "안다"는 의미를 가진 'wede'로부터 파생됨
첫째, 지식 또는 학식
둘째, 현명함
② 'wisdom'
첫째, 현실을 건전하게 판단하고 슬기롭게 다루는 능력
⇒ 심리학
둘째, 과학적 또는 철학적 지식; 박식함 내지 학식
⇒ 철학, 윤리학
셋째, 예수님 또는 하나님
⇒ 신학
넷째, 지혜의 말, 행동, 현명한 절차와 과정
⇒ 전승과 전통으로 전수된 것
③ '지혜롭다':
옳고 그른 것, 적절한 것 그리고 부적절한 것을 생각해서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

(1) 철학적 접근
① sophia 진리를 찾아 명상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지혜
② phronesis 정치가나 입법자들이 보여주는 실천적인 지혜
③ episteme 과학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지혜

(2) 심리학적 접근: 묵시적 이론
- 일반 사람들이 가진 지혜의 개념을 이해하려는 노력

(3) 명시적 이론 접근
-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 지혜이론을 구축하려고 노력

(4) 균형적 지혜 이론
- 지혜의 기반이 성공적 지능과 창의성이라고 보는 것

3. 지혜로운 돕는 자의 특징
(1) 큰 그림
① 지금 경험하고 닥치는 문제와 과제를 커다란 전후관계와 배경 속에서 이해하는 것
② 과거, 현재, 미래를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것

(2) 같은 경험, 다른 해석
- 삶의 경험들에 대한 독특한 이해와 수용
(3) 관계능력
① 자신의 삶을 이웃과 나누고 교통하는 능력
②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상호작용)
③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위치에 맞게 행동하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
☞ 관계와 소통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적 모습

④ 인간이 본래 혼자 있거나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도록 지음 받지 않았다. 더나아가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 관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솔로몬, 왕상3:16-28 ;10:1-3).

(4) 문제를 알고 풀어가는 과정에 대한 인식
-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능력

(5) 한계에 대한 인식
"지혜는 인간의 중요한 일, 보편적이고 피하기 힘든 한계들, 그리고 곧 만족한 삶을 살게 되리라는 가능성에 대한 해석적 지식이다."
① 한계를 수용하고 포기할 것과 취해야 할 것에 대한 균형을 유지한다.
② 인생의 한계를 다루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수용하는 면을 가지고 있다.

(6) 어리석음에 대한 이해
① 잠언은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대구(對句)적으로 어리석음을 자주 등장시키고 있다.
- '바보 같은 어리석음'(stupid fool)
- '완고한 어리석음'(stubborn fool)
- '부끄러운 어리석음'(shameful fool)
②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를 무시하고, 지혜를 무시하기 때문에 어리석게 된다.

☞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네 가지 과정
① 자기중심적 오류
② 박식의 오류
③ 전능의 오류
④ 불사신의 오류

4. 지혜로운 돕는 자가 되기 위한 원리
(1) 여호와 경외(기도와 은사)
①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식에서부터 기인된 '거룩한 두려움'(Holy fear)이다. 일반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때 적용되는 용례(시 111:10; 잠 8:13; 전 12:13; 렘 32:40; 히 5:7).
② 죄의 결과 또는 징벌로 인한 노예적 두려움(Slavish fear, 창 3:10; 신 28:28; 시 28:1)이 있다. 이것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니지만, 성령이 역사한다면 회개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행 16:29).
③ 인간에 대한 두려움(Fear of men, 벧전 2:18; 롬 13:7), 또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경험하는 두려움(고전 2:3; 골 2:1)이다.
④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할 때의 두려움(Fear as the object of fear)이다. 세상에는 사람들의 불의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대상이 존재한다.

▶ 관계와 경외
* 여호와 경외는 곧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출 6:2-6).

(2) 기도와 은사

(3) 관찰과 묵상

(4) 모델링과 교육
① 지식은 지혜를 적용하게 하는 중요한 마음의 자원이다.
② 사람은 생각하고 배우고 느끼는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그것을 삶에서 적용하는 지혜를 구현해 간다. F

안경승 교수
기독교 상담학과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인간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 받아 이 땅에서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라는 특권을 부여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지음 받았으나 스스로 범죄하여 파멸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의 그늘에서 기약없이 죽어가는 있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빚어 새로운 존재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우리를 빛나는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빚어 주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빚으신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정해 놓으신 원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법을 따라 순종할 때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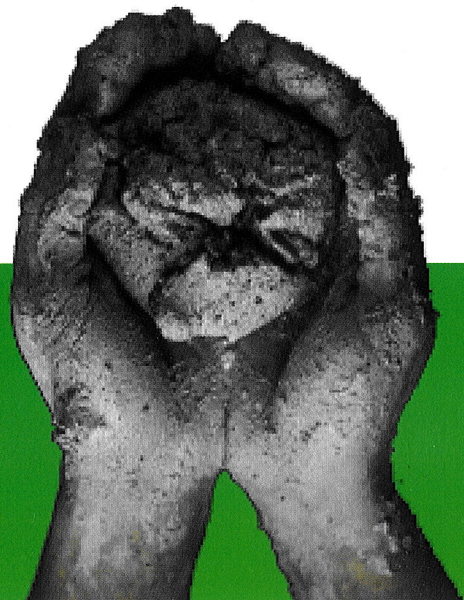
LA 근교에 "헌팅톤 라이브러리"라는 유명한 정원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장식해 놓고 잘 관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곳에는 계절을 따라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한껏 그 매력을 발산합니다. 이 곳을 찾는 이들은 이런 모습 속에서 일상의 분주함과 도시 속의 도식화된 삶을 잠시 잊고 에너지를 충전받습니다. 만일 이 곳이 이렇게 잘 가꾸어져 있지 않는다면 아무도 일부러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야생화나 야생 목초를 좋아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름답게 설계하고 정성으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과 매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전문인들의 탁월함과 그들의 수고에 찬사를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인간적인 한계도 느끼게 됩니다. 철따라 변화되는 자연의 조건과 그에 따라 피어나는 화초는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서 관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피조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피조물인 정원사들이 정성을 기울여서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연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환경(좋은 학교, 친구 원함), 건강(약. 운동) 등등 여러가지 요건들에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도자기입니다. 우리의 재료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의 빚으심으로 빛나는 도자기로 변화되지만, 근본은 여전히 진흙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더라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원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 하여야만 살 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법을 따라 순종할 때 최고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임성진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부총장

빛과 어두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은 세상의 창조입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첫 장면은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시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4절과 5절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컴퓨터입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 말씀에서도 그와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첫 부분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는 부분에 주목해야 할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과 어두움이었습니다. 이것을 신호로 사용한다면 어떤 숫자체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빛과 어두움에는 두 가지 신호 밖에는 없습니다. 1과 0입니다. 빛을 1이라하고 어두움을 0 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신호로 숫자체계를 만드는데 충분합니다. 2진법을 만들 수 있고 이 숫자체계로 많은 것들을 표현해 낼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0 과 1 뿐입니다. 즉, 신호로 말하자면 빛과 어두움입니다. 또는 on 과 off입니다. 우리들이 이해하는 모든 글자들, 색깔, 기호, 소리들도 컴퓨터는 두 가지 신호로만 받아들입니다. 즉, 사람들이 쓰는 거의 모든 기호들을 컴퓨터는 0와 1 즉 빛과 어두움이라는 두 신호만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 쓰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와 기호 소리 색깔들이지만 컴퓨터에서는 오로지 이 모든 것을 0과 1로 분해해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에서는 이런 이진법을 이용하여 우리가 이해하는 10진법의 숫자들, 소리, 색깔들을 해석하는 칩(Chips)이 장착되어 있고 이것들을 얼마나 빨리 해석하고 분석하고 결과를 내어 놓는 것이 Main Chip(CPU)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메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그 곳에서 보면 모든 사물들이 0 와 1이라는 숫자로 표시되고 있음은 가상의 세계를 보여주고 그리고 컴퓨터의 세상을 말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요즘 거의 모든 것들이 컴퓨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통 통제 시스템, 항공관제 시스템 등등 컴퓨터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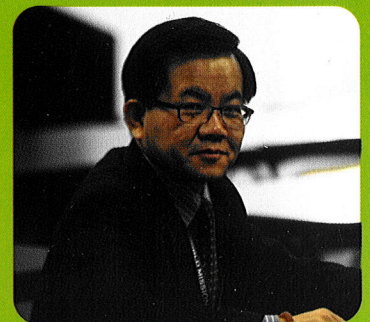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세기에 빛과 어두움을 만드시고 좋았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컴퓨터의 원리인 2진법의 신호를 가장 먼저 창조하시고 좋아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은 아주 먼 훗날인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컴퓨터라는 기계를 만들어 냈습니다. 결국 이 컴퓨터라는 기계도 사람이 만들어 냈지만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빛과 어두움'에서 얻지나 않았는지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거의 모든 창작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인 자연의 인간의 거의 모든 창작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인 자연의 아이디어를 차용하고 응용하여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새를 보고 날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고 그와 비슷한 모형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이런 예를 들면 참 이야기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컴퓨터도 하나님의 창조에서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앞으로 얼마나 발전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발전하고 그 파생 기술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결국에는 성경의 창조라는 부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와 만물의 모든 부분이 그 하나님의 창조물이 됩니다.

[창 1:4]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5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임종호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사무처장

지도자의 선택과 양육

우리 월드미션대학교에 약 50명에 이르는 신입생들이 입학하였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임동선 목사님께서 영적 지도자의 양성의 비젼을 가지고 1989년에 시작한 학교이다. 아직 미약하지만 그래도 이민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오시면서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식 신학교를 세울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비젼이었다. 그 이후로 우리 월드미션대학교가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다.

풀러 신학교의 클린톤 교수에 의하여 "효과적인 지도력을 산 지도자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미래의 지도자를 선택하고 훈련시킨다"는 것이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 자신만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배출하는데 관심을 쏟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기독교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역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 세상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아마도 지도자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었다. 지도자를 선택하시기 위하여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일을 맡기시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떠나면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부탁하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상 대사명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28:19-20절 말씀은 교육 대사명이기도 하다.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다.
사도 바울도 열심히 여러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그가 중요시 여긴 것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었다. 디모데나 실라 그리고 디도를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훈련을 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다. 또한 그가 삶의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하였다. 이 성경 구절 안에는 한 구절이지만 네 세대가 들어 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이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긴 안목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이 앞으로 몇 세대에도 지속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란 중요한 것이다. 우리 교회는 지도자들을 선택하고 배출하는 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회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준비된 사람을 찾아서 사용하려고만 하지 사람들을 키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을 찾는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한탄 한다.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을 사용하다가 힘든 일을 당한다. 그러나 사람을 사용하려고 찾기 이전에 사람을 찾아서 양육시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특별히 지도자는 이런 일에 미리 관심을 갖고 전략적으로 시간과 정성을 투자 해야한다. 사람을 사용할 소모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개발시켜 줄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다. 사람을 사용하기만 하려고 하는 조직은 당장에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인재가 고갈되고 조직은 망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에게 투자하는 조직은 결국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요사이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밖으로 지도자들을 세워 나가는 일에 열심인 것을 보게 된다.

구체적으로 미래의 지도자들을 세워가는데 우리가 어떤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해 나아가야 할까?

첫째, 우리는 앞으로 기독교적인 신앙과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미래의 일꾼들을 선택하고 양육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신앙과 전문성을 갖춘 다음 세대의 젊은 이들을 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세상 속에서 건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양육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하여 좋은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고 또 개별적으로 전문인들이 멘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로, 교회의 미래의 지도자들을 배출하기 위하여 신학을 지망하는 사람들을 양육하는데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 앞으로 교회의 미래는 우리 자녀들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강해지고 약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좋은 교회 시설을 갖추는 것도 좋지만 또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지도자들을 선택하여 양육시키는 일을 게을리 하면 안된다. 모든 신앙인이 전문 기독교 사역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좋은 자질과 가능성을 가진 많은 젊은이들을 도전하여 기독교 전문 사역에 헌신하게하고 훈련시켜야 앞으로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셋째, 교회 안에서도 평신도들을 더 이상 수동적인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지도자 들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교회는 전문인 사역자 한 두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 전체에 달려있는 것이다. 평신도들을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은사를 개발하여주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개발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지도자가 평신도들과 사역을 함께 나누는 이런 비젼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 한 민족과 한국 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지도자들을 선택하고 양육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왔다. 그래서 아무런 자연 자원이 없는 한국이 빨리 성장하고 또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가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도 더욱 이런 귀한 일에 기도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신선묵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교무처장

Johann Sebastian Bach

오랜 역사동안 음악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했던 음악의 대가들중 요한 세베스찬 바하를 통해 음악의 대가들은 과연 얼마나 음악적인 면과 영적인면에 잘 조화 된 삶을 살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함께 나누고져 합니다.

역사를 통해 바하는 교회음악의 아버지로 칭송을 받아왔는데 그는 교회음악가들에게는 거의 일종의 "수호성인" 과 같다. 전 세계적으로 그는 이제 까지 살아왔던 작곡가들 중 가장 영적으로 또 음악적으로 뛰어난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인정 받고있기 때문입니다.
바하는 주로 교회음악가로 일하면서 독일에서 전 생애를 보냈는데, 그 곳은 바하 이전 2세기 동안 성경을 기초로 하여, 살아있는 기독교를 강력하게 주장한 마틴 루터의 유산을 잘 받아들인 곳이었다. 루터 자신이 음악가 였는데 그는 음악이 복음 즉 성경 바로 다음 가는 것이라고 선언할 정도 였다.
바하는 하인리히 쉿츠라는 작곡가와 함께 그 개혁자의 가장 위대한 음악적 제자가 되었다. 바하는 루터의 확신들을 음악으로 널리 퍼트린 작곡가 였는데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인간 영혼의 소생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작곡에 착수할 때 그의 원고 공란에 JJ(Jesu Juva. 예수님 도와 주소서), 또는 INJ (In Nomine Jusu ,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표시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보 끝에다가 그는 대개 SDG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이라고 썼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바하는 깊은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믿음과 예술사이에 영적 연결점을 찾으려 부단히 노력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다윗왕이 성전음악을 제정하는 내용이 있는 역대상 25장의 성경 주석에다 그는 이런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 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음악을 위한 진정한 기초이다" 역대상 결론 부분에서 그는 또 "음악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다윗을 통해 제정되었다는 놀라운 증거" 라고 적어놓았습니다.
바하는 여느 음악가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음악가 였습니다. 그의 명성이 최고에 달했을 때 레오폴드 왕자의 궁정 음악감독 자리를 제안 받았지만 이런 큰 명예의 유혹도 뿌리치고 라이프치히 교회 성가대 지휘자라는 작은 자리를 선택 했고 비록 그 곳에서 환대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 사랑 받는 교회음악의 세계에서 은둔 생활을 하며 그 곳에서 많은 교회음악 칸타타를

윤임상 교수
음악학과 디렉터

작곡 오늘날 까지 귀한 보물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바하의 눈은 그의 생애의 마감 시간이 다 되어 가면서 쇠약해지기 시작했고. 65세가 되어서는 완전히 멀게 되었다. 그는 1750년, 오늘날에 알려진 그의 큰 명성과는 달리 소인으로 외로이 죽음을 맞게 되엇고 그의 무덤에는 바하의 무덤이라는 표시조차 되어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작품은 침대에 누워 받아 쓰게 한 것으로 "당신의 보좌앞에 나는 갑니다(Before thy throne I come) 라고 명명된 합창곡이었다.

바하, 그는 진정 보물을 세상에 쌓아두지않고 하늘나라에 쌓아두려 했던 깨어잇는 영성이 깊은 신앙인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그것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불굴의 추친력이 있었던 뛰어난 음악가 였습니다. 그가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드리는 음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운 임재로 가까이 와 계신다"

여러분, 오늘도 아니 우리의 생애동안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드리는 찬양의 삶을 사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면 다 입니까?

민수기 6장 22~26절

2003년 10월 9일 저녁 서울 구기동, 집에 거의 도착한 고정원씨는 불이 켜져 있어야 할 집에 불이 꺼져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고정원씨 눈 앞에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잔혹한 현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그의 아내가 피로 흥건해진 바닥에 엎드려져 있었고, 어두워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친 현관에는 그의 팔순 노모가 처참하게 살해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는 그의 아들인 결혼도 하지 않은 4대 독자 아들 고광신씨 또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원한관계를 의심할 만큼 잔인하게 가족들을 살해한 범인은 바로 연쇄살인범 유영철 이었습니다. 그가 살해한 사람의 수는 21명. 모든 시신들이 잔인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잔혹산 살인의 현장, 남은 상처는 크고도 질겼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민수기 6장의 하나님의 축복문을 읽어주었을 때, 과연 피해자들의 입에서, '아멘!' 이란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분명 악을 쓰면서 대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긴 한 겁니까? 하나님이면 답니까? 다냐고요!" 라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 많은 고난들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강도와 체감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각각의 개인에게 돌격해 오는 고난은 정말이지 말로는 절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프고, 괴롭고, 슬픈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난의 깊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욥을 볼까요? 욥은 아들 일곱과 딸 셋을 한 번에 잃었습니다. 아들 일곱과 딸 셋, 삼십 년에 가까운 세월을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분 만큼의 번제를 올리던 욥이었습니다. 죽음과 몰락에 결국 아내도 분을 내며 욥을 떠납니다. 먼 이야기 같습니까? 자식 열 명이 죽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까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간음함으로 낳은 아이를 포함한 아도니야, 압살론, 암논이 목숨을 잃게 하십니다. 그것도 처절한 혈육간의 배신극으로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디 존귀한 인간의 생명이 바퀴벌레만도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과 환난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고,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기 일쑤입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 2:6-7 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합니다. 망각이라는 단어에 주의하십시오. 잊기 전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유는 바로 두려움 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PSY의 강남스타일, 레이디 가가와 관련한 많은 이야기들,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들의 음악과 뮤직비디오와 가사 등에 사탄 숭배자의 배후가 숨겨져 있으며, 이러한 대중매체와 음악이라는 무기를 이용하기 위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과 같은 단체들이 검은 손,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사단의 표라는 베리칩에 대한 문제까지, 이를 해석하는 다양한 무리들과 경고하는 무리들이 많은 것은 이제 감추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깨어 있어야 하고 사단의 공작과 속임과 고발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 입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힘과도 같은 단체들, 실제로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정부와 같은 영향력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현실을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고발은 곧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습니다. 영적인 경계심을 각성시킨다는 취지로 출발하여, 두려움으로 그 끝을 맺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미 수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 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역사의 주권과 전 우주의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존재도, 단체도, 역사를 움직이거나 역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조종하지 못합니다. 악한 영들이 영향력을 땅 끝까지 퍼뜨리고 싶겠지만, 그 권세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꼴입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유익한 환난을 겁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체로 보이지 않는 두려움! 언제 다가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나를 삼키고, 가족을 삼킬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의 인격적 성장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의 일부인 환난을 막습니다. 우리는 그저 무시하려 합니다. 외면하려 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렘 1:17-19 "그러므로 너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여라.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를,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과 쇠기둥과 놋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 곧 유다의 왕들과 관리들에게 맞서고, 제사장들에게 맞서고, 이 땅의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두려워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시고 계실 겁니까?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롬 5:3-6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 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성도가 회피하는 환난의 진짜 목적은 인격의 성장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환난이 주는 성장을 놓치지 마십시오. 물론, 두려움은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편에 얹혀서 두려움과 상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딸을 교통사고로 한 번에 잃은 '하나님 앞에서 울다'의 저자 제럴드 싯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상실을 겪음으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림으로써,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소중한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까지의 우리 자신을 벗어버리고, 참되며 가장 심원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라는 존재를 빚은 그분을 발견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들로 진정 자신이 망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성도들과 아픔을 나누어 아픔을 위로하고, 위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우십시오. 우리에게 몰려오는 두려움을 실질적인 교제, 들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밥 먹고, 자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처를 나누고, 아픔을 나눔으로 뚫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의 인격의 성장으로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시지 않는 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이며, 우리는 주께서 지키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는 대상들입니다. 두려움이라는 큰 무기를 휘두르는 사단의 공격에 혹 해서 저게 뭔가 하며 유심히 들여다보기보다 온 지성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알고, 온 감정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욱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데 모든 의지를 동원하십시오. 빌립보서에서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빌 4: 13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어떠한 꼴이라도 당할 수 있다라는 고백. 여러분, 이제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억양을 조심하시면서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면 다 입니다."

민수기 6장 22~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서태욱 학우
BABS 졸업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돌아보며

2005년 봄, 월드미션대학교 목회학 석사 3년 과정을 시작했었지만 우여 곡절 끝에 8년이 지난 지금에야 겨우 학업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 2007년 5월에 국내 사역을 정리하고 갑자기 아프리카 가나로 떠났다. 선교지에서의 지난 5년간은 생존을 위한 기간이었고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하는 기간이었다. 인간적인 모든 수단이 봉쇄되어버린 인생의 사막과 광야는 하나님이 부르신 내 인생의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새끼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도록 훈련하는 어미 독수리처럼 하나님은 나를 인생의 절벽에서 밀쳐내시는 듯하였지만 나에게 날개가 달려 있음을 알게 하셨다. 목사 고시를 준비하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금 정리해볼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한다. 나는 나 스스로 목사가 될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나를 이 자리까지 부르신 그분의 의지 앞에서 나는 기꺼이 순종하고자 한다. 목회 소명을 통해서 나를 택해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돌아보고 부르심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 인생의 제2막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나의 헌신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3남 2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일찍이 고향을 떠나 방랑벽이 있었던 부친은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가정을 버리고 어디론가 가버리셨고 홀로 남은 모친은 어린 우리 다섯 남매를 키우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다.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늘 가난했던 추억이 대부분이다. 남들처럼 집도 한 칸 없어 자주 이집저집 사랑방이며 헛간 같은 방들을 얻어 살았지만, 모친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모친의 기대에 답하여 늘 반장을 했었던 기억이 있으며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내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담임 선생님의 배려로 졸업과 함께 부산상고에 입학하게 되었으며 은행원이 되려는 꿈을 가졌었다.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외환은행에 특차로 채용되었고 동아대학교 상과대학(야간)에도 합격했다. 나는 꿈에 도취하였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 무렵이었다. 대학교 1학년이던 1978년 봄에 같은 학과 친구를 따라나간 교회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였고 당시 거제교회 대학부에서 지금 고신대 교수로 계신 이상규 전도사님과 좋은 친구도 만났다. 그분의 진지하고 겸손한 인품에 끌려 대학 졸업 후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싶었고 목회자의 길을 위한 많은 조언을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아직 예수님을 모른 채, 안 믿으시는 모친에게 전도하는 일이었다. 동네 뒷산에 있는 절에 다니셨는데 내가 예수님 믿은 사실을 달가워 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집안에 종교가 다르면 평안함이 없다며 경계를 하셨다. 직장을 다녀오면 곧바로 우리가 세들어 살던 단칸 방에 틀어 박혀서 하나님께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다. "예수님, 우리 어머니 예수님 좀 믿게 해주세요." 날이면 날마다 기도했다. 어느 날도 퇴근 후에 집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모친이 나들이 가셨다가 내가 온 줄 아시고 방문을 여셨는데 내가 벽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조용히 문을 닫으셨다.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취침 기도를 하는데 옆에 누워계시던 모친이 가만히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들이 그렇게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줄 몰랐다. 네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어 보련다." 모친은 그날 이후 나와 함께 새벽기도를 다니시면서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맛보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위로와 살아계신 성령의 감동을 맛본 모친은 자주 이런 고백을 하셨다. "얘야, 내가 좀 더 일찍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친은 곧 바로 절에 같이 다니던 동네 친구분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셨는데 그중에는 아주 영향력 있던 무당 아주머니도 있었다. 모친의 전도로 그 무당도 어느 날 결단하고 모든 굿에 사용되던 물건들과 집안에 설치된 우상들을 불태우고 세례를 받았고 뒤에 그 남편과 함께 교회 집사로 세워져서 그 집안이 모두 구원을 받았다. 모친의 전도열은 대단했다. 자나 깨나 입만 열면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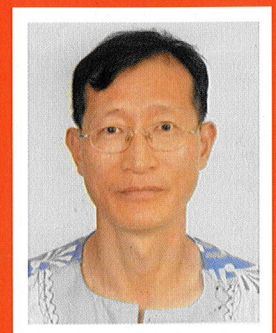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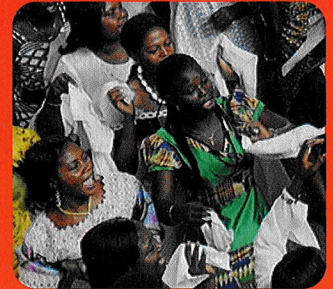
모친은 그로부터 3년 뒤에 내가 군에 가 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홀연히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다. 사역자로서 나의 소명은 모친과의 마지막 이 땅에서 함께 드린 기도에서 비롯된다.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부산에서 후반기 교육 중인 병참 부대로 면회를 오셨다. 그날은 표정이 너무도 밝으셨는데 나는 사람의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나는 것을 처음 보았다. 면회실에서 내 손을 붙잡으시고 한참 기도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들었다. "아버지, 제 아들 김문기 군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는 처음 들었고 이상하게 내 마음에 강하게 남았다. 모친은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사흘 후에 하늘나라로 가셨다.

모친을 여읜 슬픔은 매우 컸다. 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훈련하셨다. 1981년 1월 즈음이었다. 힘든 상황에서 어느 날 내무반에서 홀로 주님의 뜻을 구하던 나에게 주님은 잠언 23장 17~18절 말씀을 보여주셨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지 말고 주님만을 온전히 경외하고 의뢰하도록 명령하셨다. 그리고 나의 일생은 그분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큰 울림이 일어났는데 그런 경험은 나에게 너무도 놀랍고 특이해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러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또 다른 말씀을 주실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에 손길이 가는 대로 성경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이번에는 예레미야애가 3장 27절~28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온몸이 떨려왔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급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데려가신 일이며 지금 겪는 삶의 역경들이 모두 그분의 나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자 참을 수 없는 감동 속에서 한참을 울면서 기도드렸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모친의 마지막 기도처럼 나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제대 후에 복학한 캠퍼스에서 만난 네비게이토 선교회는 하나님

께서 나를 준비시키시는 또 다른 도구였다.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렀던 나에게 네비게이토는 많은 도전을 통해서 실재적인 말씀과 다른 사람을 도와서 세워주는 헌신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도와주었다. 그 이후 20여 년 동안 이 선교회에서 활동했다. 개인에게 전도해서 양육하고 조그만 그룹을 맡아서 인도하기도 하고, 팀을 이끌면서 사역의 규모를 넓혀나갔다. 나중에는 협력 간사로 임명되어 섬겼다.
이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선교사로서의 꿈을 갖게 하셨다. 당시에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은 매우 생소한 것이었기에 선교사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선교에 대한 열망은 뜨거웠다.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않으셨고 결국 나를 선교지로 이끌어 내셨다.
네비게이토 선교회에서는 직업을 가지고 스스로 자비량하면서 후원에 의존하지 않는 선교방침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한 현재의 직업을 가지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았으나 그 길은 생각처럼 잘 열리지 않았다. 대학 진학 준비하는 자녀와 (고1, 고3, 초6) 경제적 상황, 그리고 안정적인 사역을 놓고 가는 것이 힘들었다. 결국, 사회적인 기반도, 사역적인 기반도 다 무너져 버린 뒤에야 하나님께 손을 들었다. 하나님은 내가 붙잡았던 안정이란 우상을 깨뜨리시고 나로 하여금 당신의 손을 붙잡도록 하셨다. 40대 후반에 인생이 무너지는 공포를 겪으면서 인생의 새로운 차원을 - 소위 밑바닥 인생이라고 하는- 겪으면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그 누구도 믿고 기댈 곳이 없었기에 주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아무런 계획이나 계산을 할 수 없었으므로 그저 기도하는 중에 선교지로 나갈 것을 섬기던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국내 사역을 접었다. 그 참담하고 두렵던 시간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짐들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홀로 섰다. 그러자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고 결국 선교지로 나오게 되었다.

2007년 5월 이후 선교지에서 6년을 보냈다.
나는 교회의 파송으로 선교지에 왔지만, 재정적인 문제는 조그만 사업을 하면서 스스로 해결해 왔다. 가장 생활비가 많이 드는 시기에 오늘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기적이 아닐 수 없다.
한편으로 월드미션 대학교의 배려로 지난해부터 그동안 중단했던 신학공부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무런 조직적 후원도, 기댈 곳도 없는 나에게 월드미션대학교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고 힘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칠천의 군사 같았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과정임을 확신한다. 사실 그동안 나는 목사라는 타이틀에 대한 필요를 그렇게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제 한 선교기관을 넘어서서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 속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선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목사라는 타이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 자신을 새롭게 헌신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분이 맡기시는 일에 기꺼이 사용되기를 소망한다."

김문기 학우
원격 프로그램
M.Div. 졸업생
가나 선교사

2012

1. 캐나다 단기선교
2. 신학대학 연합 체육대회
3. 사랑의 음악회
4. Petronel Malan 초청 연주회
5. 제 12 회 학생 연주회
6. 재학생 선교사 후원의 밤
7. 월드미션의 밤

1 단기선교팀은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캐나다 벤쿠버 지역의 빅토리아 아일랜드의 코목스(Comox)로 원주민 사역을 다녀 왔다. 원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중요한 사역은 문화 사역으로 한국 전통 악기, 전통춤으로 이루어진 워십댄스, 태권도, 합창, 어린이 사역으로 VBS를 준비하여 원주민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2 10월 20일 칼슨시티에 위치한 빅토리아파크에서 남가주 신학대학 연합 체육대회가 있었다. 주최 대학인 국제개혁 신학대학교 외 6개 대학들이 참가 했다. 이날 본교는 축구 1위, 배구 3위로 참가 대학 중에서 종합 3위라는 순위를 하였다. 경기에 참여하지 않은 학우들과 경기에 임한 선수들 모두 운동 경기를 통하여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시간을 가졌다.

3 7월 31일 LA월트디즈니콘서트홀에서 한국입양홍보회의와 LA 한인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동주최로 열린 '홈리스 어린이들을위한 사랑의 음악회'에 본교 교수님, 졸업생, 학생들이 참여하여, 전 세계 고아 아이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세지를 전했다.

4 9월14일 Zipper Hall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Petronel Malan의 음악과 장학기금 마련 초청 연주회가 있었다. 본교가 수준있는 연주회를 유치함으로써 양질의 교육함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수익은 학생들의 연주홀을 마련하는데 쓰여진다.

5 11월 10일 동양선교교회(LA)에서 음악과의 제 12 회 학생연주회가 "모스크바의 밤" 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연주회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곡가 작품 중요 작품들을 연주하면서 러시아 음악을 집중 조명하였다.

6 11월 3일 본교에서 '재학생 선교사를 위한 후원의 밤'이 있었다. 1부에서는 음악과 학생들로 구성된 재즈 트리오의 연주 가운데 식사를 2부에서는 본교 음악과 학생들과 졸업생들의 노래와 연주가 있었으며, 3부에서는 풀러 신학대학교의 박기호 교수가 '선교사의 역할과 신학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비전을 나누고, 세계 각지의 선교사 재학생 및 동문들과의 동영상 인터뷰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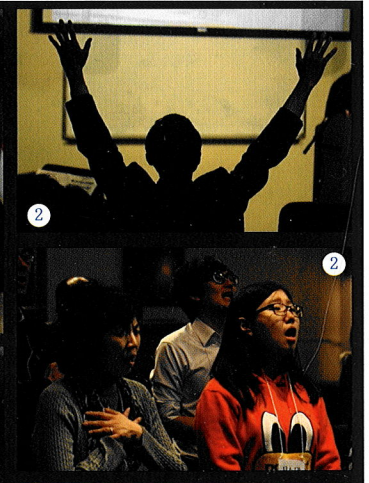
7 월드미션의 밤이 11월 20일 본교에서 열렸다. 이날 학우들과 동문들을 맛있는 만찬에 초대하여 시작된 행사는 8시부터 본교에 소속된 재능있는 학우들과 외부에서 섭외되어 온 인사들의 축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행사 중간에 설교 대회의 시상과 성경 암송 대회의 시상이 있었으며, 교수들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마련에 동참하여 장학금 쿠폰이 나눠지는 뜻 깊은 순서도 있었다.

1 1월 22일 화요일 본교 채플실에서 있었다. 강사로 나침반 교회 담임 목사인 민경엽 목사가 사도행전 2:42-47 본문 말씀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다. 민 목사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전하였다.

2 2월17일과 18일 양일간 윌리엄 캐리 국제대학교 수양관에서 있었다. 이광식 부회장의 찬양 인도로 시작,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가?" 라는 주제로 한길교회 담임 노진준 목사의 은혜 충만한 말씀도 있었다. 노진준목사는 "은사는 사명이고 축복인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 라고 말씀을 전하였다.

3 2월 28일, 본교에서는 '오늘날 교회 예배에서의 음악 이대로 좋은가? 오늘날 예배음악의 유형'이라는 주제로 교회내 예배 음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심포지엄에서는 예배 음악에 대한 트렌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경이 제시하는 진정한 예배 음악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이었고, 청중들과 패널들이 함께 토론하며 예배 음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뜻깊은 기회였다.

4 창립 24주년을 맞이하여 4월 2일부터 4일까지 지역 교회와 세상 속의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한 일환으로 한 주간 동안 강의실을 공개했다. 부담없이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본교 교수님들의 강의를 하나님 뜻과 사역에 헌신한 학생들과 함께 수강하면서 함께 배우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기회였다. 강좌에 참석한 참석자 들은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며, 교수의 강의에 진지하게 임하였다.

5 5월 4일, 월드미션대학교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친선 골프대회가 파사데나에 위치한 Brookside Golf Club에서 있었다. 이 날 총 13팀이 참가했으며, 골프 대회에 이어진 저녁식사는 이금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송정명 총장이 후원하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렸으며 본교 음악과 석사과정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있는 김미진 학우의 간증과 독창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다.

1 개강 부흥회
2 봄학기 수련회
3 음악 심포지엄
4 공개강좌
5 골프대회

WORLD MISSION UNIVERSITY
TRANSFORMATIONAL BIBLICAL EDUCATION

1992년 제 1 회

박대영	Dip.
박현수	Dip.
강성구	M.A.
김진숙	M.A.
임성진	M.A.
김용식	M.Div.
오기열	M.Div.
이법웅	M.Div
조원하	M.Div.

1993년 제 2 회

고바울	
한은희	M.A.
남조웅	M.Div.
오윤화	M.Div
유순자	M.Div
윤경호	M.Div
이 훈	M.Div.
임용한	M.Div

1994년 제 3 회

고혜연	
김영희	
김성봉	B.A.
김추자	B.A.
이영숙	B.A.
박병철	M.Div
안국련	M.Div
이극래	M.Div
이승인	M.Div
이재현	M.Div
이정남	M.Div
이종예	M.Div
주영세	M.Div
함상배	M.Div

1995년 제 4 회

이은혜	
임금화	B.A.
장코스모스	B.A.
홍문숙	M.A.
김계희	M.Div
김재선	M.Div
이제은	M.Div
조화진	M.Div
최영희	M.Div

1996년 제 5 회

박정숙	
유경순	B.A.
이명희	B.A.
김성조	M.A.
박명보	M.A.
백영두	M.A.
김덕규	M.Div
김성자	M.Div
김애영	M.Div
김인광	M.Div
김진국	M.Div
남윤희	M.Div
노명섭	M.Div
박준림	M.Div
서기자	M.Div
윤재영	M.Div
이주형	M.Div
최서혜	M.Div

1997년 제 6 회

권재옥	B.A.
김동준	B.A.
이성례	B.A.
이혜정	M.A.
신봉례	M.Div

1998년 제 7 회

김인희	B.A.
김효복	B.A.
우병은	B.A.
이경인	B.A.
이해련	B.A.
전춘영	B.A.
황성은	B.A.
권옥선	M.Div
김주연	M.Div
류창식	M.Div
신영희	M.Div
엄재헌	M.Div
이인검	M.Div
전성도	M.Div
전인순	M.Div
한희숙	M.Div

1999년 제 8 회

김경례	B.A.
정남숙	B.A.
양준석	M.A.
김인수	M.Div
백우철	M.Div
윤성환	M.Div
이명희	M.Div
이상혁	M.Div
최학철	M.Div
조성운	M.Div

2000년 제 9 회

강정학	B.A.
박재민	B.A.
유동훈	B.A.
이보경	B.A.
조은혜	B.A.
홍종우	B.A.
송종은	M.A.
권재옥	M.Div
김대환	M.Div
김동준	M.Div
김인희	M.Div
박정숙	M.Div
전춘영	M.Div
정영식	M.Div
조항목	M.Div
황성은	M.Div

2001년 제 10 회

김대준	B.A.
서필관	B.A.
오하영	B.A.
이미량	B.A.
진미애	B.A.
진범서	B.A.
진숙이	B.A.
최영순	B.A.
홍표란	B.A.
이해련	M.Div
조배성	M.Div

2002년 제 11 회

강태준	B.A.
김선애	B.A.
김승원	B.A.
김정옥	B.A.
안용균	B.A.
윤병완	B.A.
이신재	B.A.
주문경	B.A.
최준영	B.A.
진성백	B.A.
고영집	M.Div
김경례	M.Div
김대준	M.Div
김은숙	M.Div
유동훈	M.Div
한광덕	M.Div

2003년 제 12 회

구은혜	B.A.
김경희	B.A.
김연옥	B.A.
윤희석	B.A.
이갑년	B.A.
이순옥	B.A.
임양택	B.A.
최임식	B.A.
한석규	B.A.
배윤범	M.A.
오광찬	M.A.
김승희	M.Div
김창국	M.Div
박인호	M.Div
박재민	M.Div
서필관	M.Div
이후상	M.Div
이희성	M.Div
장윤정	M.Div
진성백	M.Div
최준철	M.Div
한은혜	M.Div

2004년 제 13 회

곽종혁	B.A.
권인순	B.A.
김규호	B.A.
김수현	B.A.
서상민	B.A.
서영희	B.A.
성옥호	B.A.
이만식	B.A.
이미정	B.A.
최현숙	B.A.
곽상채	M.A.
이신재	M.A.
고영보	M.Div
김학송	M.Div
김혜선	M.Div
방헬렌	M.Div
변형철	M.Div
양성반	M.Div
유정수	M.Div
유혜란	M.Div

2005년 제 14 회

강문정	B.A.
김덕호	B.A.
김박선미	B.A.
김연주	B.A.
김영애	B.A.
노광조	B.A.
이명옥	B.A.
이순자	B.A.

2005년 제 14 회

오광탁	B.A.
최영석	B.A.
조경진	B.A.
박정일	M.A.
정부르스	M.A.
최선영	M.A.
윤병완	M.Div
이사무엘	M.Div
임양택	M.Div
장시희	M.Div

2006년 제 15 회

강명석	B.A.
김선영	B.A.
김소영	B.A.
김영준	B.A.
박기용	B.A.
박영산	B.A.
이귀란	B.A.
이인미	B.A.
이지나	B.A.
정연희	B.A.
박지은	B.A.
김진주	M.A.
문혜원	M.A.
강태준	M.Div
김영종	M.Div
노광조	M.Div
백희숙	M.Div
양덕승	M.Div
오하영	M.Div
우상문	M.Div
이지혜	M.Div
장원욱	M.Div
한대연	M.Div
최준영	M.Div
홍표란	M.Div

2007년 제 16 회

김영철	B.A.
김명구	B.A.
김 룡	B.A.
김병성	B.A.
김용일	B.A.
Dan Son	B.A.
김현욱	B.A.
김혜정	B.A.
박정애	B.A.
오정성	B.A.
윤명주	B.A.
이강천	B.A.
이기영	B.A.
이옥희	B.A.
임중혁	B.A.
장은혁	B.A.
정성자	B.A.
정세련	B.A.
한춘복	B.A.
허영애	B.A.
윤성희	B.A.
원영미	M.A.
김정신	M.A.
김연주	M.A.
임명화	M.A.
전진수	M.A.
홍선영	M.A.
강대홍	M.Div
유동근	M.Div
김덕호	M.Div
서충석	M.Div
이혁우	M.Div
장재영	M.Div

2008년 제 17 회

이름	학위
곽창원	B.A.
김그레이스	B.A.
김경래	B.A.
김대성	B.A.
김옥배	B.A.
John Kim	B.A.
박옥련	B.A.
석미연	B.A.
심갑섭	B.A.
안두환	B.A.
안정희	B.A.
엄인호	B.A.
왕영신	B.A.
윤상숙	B.A.
이석주	B.A.
이원희	B.A.
이정인	B.A.
이흥구	B.A.
정병기	B.A.
조광범	B.A.
주익성	B.A.
차세실	B.A.
채규태	B.A.
채동훈	B.A.
최은희	B.A.
최자란	B.A.
권상욱	M.A.
김영안	M.A.
김주영	M.A.
김희경	M.A.
박양숙	M.A.
백혜선	M.A.
이나은	M.A.
이미경	M.A.
이미정	M.A.
강석재	M.Div
기회승	M.Div
김상중	M.Div
김수현	M.Div
김옥균	M.Div
김인철	M.Div
김철수	M.Div
노명철	M.Div
노창수	M.Div
박창식	M.Div
송필오	M.Div
신중필	M.Div
오광탁	M.Div
이대일	M.Div
이성균	M.Div
이영섭	M.Div
이종임	M.Div
이종현	M.Div
이지희	M.Div
이홍주	M.Div
장윤현	M.Div
장진호	M.Div
Paul Chung	M.Div
조승환	M.Div
하윤호	M.Div
허종훈	M.Div
황만기	M.Div

2009년 제 18 회

이름	학위
강동완	B.A.
곽동훈	B.A.
김나경	B.A.
김성아	B.A.
김제홍	B.A.
김중한	B.A.
노종주	B.A.
라인근	B.A.
박노라	B.A.
박용수	B.A.
박인성	B.A.
박중섭	B.A.
양한나	B.A.
오금미	B.A.
이현일	B.A.
이혜란	B.A.
조성은	B.A.
홍승미	B.A.
안영표	B.A.M.
이대명	B.A.M.
장주언	B.A.M.
정성희	B.A.M.
김도희	M.A.M.
류은미	M.A.M.
윤경미	M.A.M.
이경원	M.A.M.
조현주	M.A.M.
권은석	M.Div
김경숙	M.Div
김인숙	M.Div
목창명	M.Div
박원희	M.Div
박윤우	M.Div
박종환	M.Div
박홍열	M.Div
백인천	M.Div
서명호	M.Div
서상민	M.Div
안창규	M.Div
안창호	M.Div
유병진	M.Div
윤희석	M.Div
이기영	M.Div
이양우	M.Div
이태희	M.Div
임보영	M.Div
최준모	M.Div
한상훈	M.Div

2010년 제 19 회

이름	학위
김경목	B.A.B.S.
김동환	B.A.B.S.
박병문	B.A.B.S.
박정훈	B.A.B.S.
손복남	B.A.B.S.
송윤효	B.A.B.S.
신주영	B.A.B.S.
장미영	B.A.B.S.
전금자	B.A.B.S.
정훈주	B.A.B.S.
조유미	B.A.B.S.
여현정	B.A.B.S.
이명은	B.A.B.S.
이미란	B.A.B.S.
이상천	B.A.B.S.
이용자	B.A.B.S.
이유수	B.A.B.S.
이해봉	B.A.B.S.
최세라	B.A.B.S.
함성호	B.A.B.S.
윤박선미	B.A.C.C.
이유순	B.A.C.C.
임윤수	B.A.C.C.
이재순	B.A.C.C.
홍성애	B.A.C.C.
김선봉	B.A.M.
김호인	B.A.M.
서소희	B.A.M.
이영수	B.A.M.
윤은영	M.A.T.
이근식	M.A.T.
정성자	M.A.T.
김인정	M.A.M.
박종휘	M.A.M.
성지현	M.A.M.
이현국	M.A.M.
이현진	M.A.M.
이현행	M.A.M.
조정미	M.A.M.
조준석	M.A.M.
김광영	M.Div
김규호	M.Div
김권수	M.Div
길선욱	M.Div
김기종	M.Div
김명구	M.Div
김문철	M.Div
김현진	M.Div
박상도	M.Div
박해영	M.Div
오진성	M.Div
최학선	M.Div
이원경	D.Miss.

2011년 제 20 회

이름	학위
권영수	B.A.B.S.
김선애	B.A.B.S.
김선희	B.A.B.S.
김수지	B.A.B.S.
김주훈	B.A.B.S.
이성희	B.A.B.S.
임성건	B.A.B.S.
김성은	B.A.B.S.
김장환	B.A.B.S.
윤광선	B.A.B.S.
박덕례	B.A.C.C.
박옥임	B.A.C.C.
김성렬	B.A.M.
유영림	M.A.T.
이미란	M.A.T.
최 일	M.A.T.
한정아	M.A.T.
홍귀주	M.A.T.
김용재	M.A.M.
김재숙	M.A.M.
김지환	M.A.M.
이지환	M.A.M.
전요셉	M.A.M.
곽종혁	M.Div
곽창원	M.Div
김대동	M.Div
김대성	M.Div
박선미	M.Div
김선영	M.Div
김정득	M.Div
금미화	M.Div
석미연	M.Div
신은혜	M.Div
오 진	M.Div
유정진	M.Div
윤명주	M.Div
주익성	M.Div
추영선	M.Div
허영애	M.Div
강창호	M.Div
김근수	M.Div
문주철	M.Div
박표강	M.Div
서동욱	M.Div
서용철	M.Div
송창건	M.Div
송창호	M.Div
이미정	M.Div
이성은	M.Div
이원희	M.Div
정정일	M.Div
조중현	M.Div
한홍조	M.Div
허환구	M.Div
홍오선	M.Div
황지용	M.Div

2012년 제 21 회

이름	학위
고돈범선	B.A.B.S.
김지훈	B.A.B.S.
김충남	B.A.B.S.
노정식	B.A.B.S.
박선우	B.A.B.S.
박윤숙	B.A.B.S.
박효순	B.A.B.S.
서덕자	B.A.B.S.
서무생	B.A.B.S.
유병필	B.A.B.S.
이상윤	B.A.B.S.
임영자	B.A.B.S.
정유나	B.A.B.S.
정진정	B.A.B.S.
정현성	B.A.B.S.
조용진	B.A.B.S.
조창희	B.A.B.S.
최종일	B.A.B.S.
김정은	B.A.C.C.
이조일	B.A.C.C.
최병숙	B.A.C.C.
김영빈	B.A.M.
김명환	M.Div
김승엽	M.Div
김혜원	M.Div
박도용	M.Div
박소영	M.Div
신명숙	M.Div
신병철	M.Div
유문규	M.Div
이권헌	M.Div
이명욱	M.Div
이유수	M.Div
이재식	M.Div
이지애	M.Div
임중혁	M.Div
정요한	M.Div
조태범	M.Div
최고명숙	M.Div
황재길	M.A.M.
김성은	M.A.M.
김주희	M.A.M.
박형준	M.A.M.
이은정	M.A.M.
정재혁	M.A.M.
김상욱	M.A.T.
서혜진	M.A.T.
안혜랜	M.A.T.
이 현	M.A.T.
이영대	D.Miss.

월드미션 대학교 교가

씩씩하게
Allegro Moderato ♩=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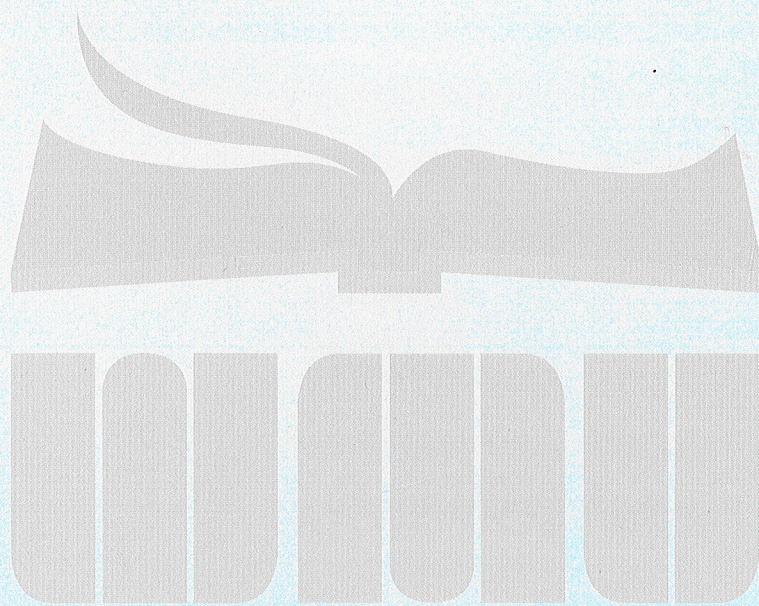
임동선 작사
박재훈(1992.5.30)

1.주 님 이부 – 르 – 셨 네 주님 이 부 르 셨 네 추 수 할일 – 꾼 –
2.주 님 이보 — 내 — 시 네 주님 이 보 내 시 네 족 기 까지 — 충성

6
되 라 우리 를 부 르 셨 네 체력 하 문 연마 하 라 인격 영 력길 러보
하 라 우리 를 보 내 시 네 모든 민 족 제자 삼 아 땅끝 까 지증 인되

12
라 (길러보라) 주 – 님 (주님)이 부 르 셨 네 주 – 님 이부 르 셨 네
라 (증인되라) 주 — 님 (주님)이 보 내 시 네 주 — 님 이보 내 시 네

17
solo piano or orchestra 주 님 만 스 – 승 – 삼 은 우 리 월 드 미 션 대 학

21
교 주 님 만 을 스승 삼 은 우 리 월 드미션대학 교

발행인 송정명
편집인 임성진, 임종호, 윤명주, 이황정
발행인 2013년 5월 28일
발행처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22
www.wmu.edu
wmuinfo@wmu.edu